

적응인가, 위기인가?: 현재 한국 가족의 변화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Is it the progress or the crisis?: How do we interpret the family change in Korea today?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서선희**

Division of Social Welfare, Gwangju University
Professor Suh, Sun-Hee

〈목 차〉

- | | |
|------------------|------------------------|
| I. 서론 | IV. 통계 자료로 본 한국 가족의 변화 |
| II. 선행연구 | V. 변화의 해석 |
| III. 연구의 목적과 방법론 | VI. 결론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features of the Korean family change since 2,000 and to interpret the meaning of the change on the basis of the critical review of both the positive perspective and the negative perspective of the family change in Korea. Through the method of the literature review and the analysis of the various statistics by KOSTAT, it is drawn that explaining the change only by “diversity of family compositions” is not enough to figure out the meaning of the family change in Korea today and that it is needed to go further to approach the change as disintegration of the ‘nuclear’ composed of the married couple and their children. It is also drawn that the disintegration has led to weakening of the long term functions by the family, i. e., the function of life and of the virtues, which shakes the way of human life and the order of our society. Therefore, the present family change in Korea is to be understood as crisis, not as progress. And it is recommended that the family politics in Korea is to be focused on the ways for the healthy functioning and rebuilding the nuclear of the family.

Key Words : 가족 위기론(the crisis perspective of family change), 가족 적응론(the adaptation perspective of family change), 가족 변화(family changes), 가족정책(family politics)

* 이 연구는 2017년도 광주대학교 대학 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주저자, 교신저자: 서선희(sunhee@gwangju.ac.kr)

I. 서론

가족은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아서 늘 변화를 하는 제도로 이것은 한국 가족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 가족은 근대 이전에서부터 근대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변화를 해왔다.

그간의 변화 중에서 2,000년에 들어서면서부터 나타나고 있는 한국 가족의 변화는 구조나 형태면에서 그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1인 가족이 증가하여 가족의 분화가 핵가족 수준을 넘어서고 있고, 동거나 한부모 가족이 증가하여 통상적으로 가족이라 생각하는 범위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만혼이나 비혼이 증가하고 있으며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기피현상도 나타나고 있어 사람들의 가족에 대한 가치관 역시 기존의 결혼관이나 자녀관에서 훨씬 벗어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혼이나 재혼 또는 조손 가족이 증가하여 가족의 형태에서도 기존의 가족 개념이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저출산 고령화”라는 한국 사회의 고민과 맞물려 가족을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관심사 내지는 정책의 대상으로 밀어 올리고 있다. 이렇게 가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가족관련 학계에서는 현재의 한국 가족의 변화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미래의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의 문제, 즉 가족변화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다. 가족변화를 어떻게 보는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가족정책의 방향은 가족 변화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가족 정책은 가족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학계에서의 가족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는 주로 페미니즘 입장에서 제기되고 주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페미니즘은 가족이 인간으로서의 여성의 발달과 성장을 어떻게 저해하였는지를 밝혀내어, 한국 사회에서의 가족에 대한 철통같은 민

음, 즉 가족은 인간 생활에 유익하다는 보편적 인식이 신화임을 드러내고, 가족을 과학적 연구의 대상으로 올려놓았다. 페미니스트들의 노력으로 가족의 다차원적 측면들이 분석되기 시작하였고, 가족에 대한 찬사나 긍정 일변도에서 벗어나 착취와 억압이라는 가족의 비정의적 측면이 드러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공헌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즘은 한국 사회에서 가족에 대한 논의가 주로 가족 비판적 또는 반(反)가족적 입장에서 전개되는 경향을 초래하기도 했다. 여성주의자들은 여성에 대한 가족의 비정의적 요소에 집중하여 가족을 비판적으로 접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보니, 한국 사회에서 지금까지의 가족에 대한 논의는 가족 비판적 입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가족이 어떻게 억압과 차별을 지지하는가, 가족이 어떻게 정의롭지 못한 제도인가, 가족이 사랑과 안식을 가치로 내걸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그와는 다른 가 등등, 가족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논의의 주제를 선도하여 왔고, 이러한 견해들은 “가족을 침식해”왔다(권오주 외, 1991: 71).

이러한 가족 비판적 견해 앞에서 던져야 할 질문들이 있다. 가족에 본래적인 문제가 있다면 인간 사회에서 계속 유지되도록 지원하고 지지해야 하는가? 아니면 가족이 문제가 있음으로 보존과 유지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필요가 없는가? 가족이 없거나 미약한 새로운 삶의 방향을 받아들이고 추구해야 할 것인가? 이들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반가족적 입장의 반대편, 즉 친가족적 입장에서 가족에 관한 논의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친가족적 견해는 반페미니즘적인 면이 있지만(권오주 외, 1991: 7),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가족적 측면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 어떤 현상에 대한 시각은 진보와 보수의 양 기등을 중심으로 하여 펼쳐지는 스펙트럼이기 때문이고, 가족에 대한 논의도 마찬가지이다. 가족에 대한 보수적 입장이 정리되어질 때 가족 논의의 스펙트럼이 완결될 수 있다.

쟁점의 어느 입장을 선택할 것인가는 이 부분이 완결된 다음의 문제이다.

본 연구는 2,000년 이후에 한국 가족에 나타나고 있는 변화의 특성을 친가족적 입장에서 재조명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현재의 한국 가족변화에 대한 해석을 하고자 한다. 한국 가족의 변화를 분석한 지금까지의 분석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방향에서 변화의 특성을 추출하여 내어 지금의 가족 변화의 방향을 재조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II. 선행연구

한국 가족에 대한 사회과학적 연구는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미 시작되었지만, 가족변화가 본격적인 연구의 주제로 검토된 것은 대략 1970년대 무렵부터라고 할 수 있다. 당시 근대화는 광범위한 사회현상이었기 때문에 이 거대한 사회변화가 가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묻는 연구의 출현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여러 연구들이 근대화는 친족관계(이광규, 1975; 이효재, 1971; 최재석, 1982), 부부의 역할(이광규, 1975; 이효재, 1971; 최재석, 1982), 또는 가족관계의 변화를 가져왔음을 보고하였다.

근대화라는 사회변화와 가족과의 관계에 대한 관심은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에 이르면 근대화에 따른 미래 가족에 대한 예측들로 연결되어졌다. 즉, 근대화가 핵가족화를 통해 가족의 분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영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가? 그렇다면 가족의 분화는 어느 수준까지 갈 것인가? 과연 미래사회에도 가족이란 제도가 존재할 것인가? 등의 문제가 논의되었다.

이처럼 가족변화가 가족 연구의 주제로 부상하고 가족변화가 가져올 가족 존재의 방향성에 대한 관심이 일어났지만, 1980년대까지의 논의는 그 방향성에 대한 판단까지는 연결되지 않았다. 변화의

미래에 대한 토의가 있었지만 그것은 근대화라는 전 세계적 변화 앞에서 가족이라는 제도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일반론적 가족 변화에 대한 관심이었고, 그 논쟁도 길게 가지 않았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가족의 변화는 가치관 변화의 측면에서 연구되었다. 여러 연구자들이 결혼과정(또 하나의 문화, 1991, 1996; 정은희, 1993; 조혜정, 1988, 1998), 가족(박숙자, 1995; 이미경, 1999; 이효재, 1995; 심영희·정진성·윤정로 편, 1999; 한남제 외, 1994), 그리고 성역할(여성한국사회 연구회, 1992; 조혜정, 1998; 한남제 외, 1994)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조사하였는데,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가족 가치관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영역에서 전통적 가치관에서 개인주의적 가치관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한국 가족이 단지 기능이나 역할에서만 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심층적인 차원에서의 변화, 즉 가치관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이 공통적인 결론이었다.

이렇게 1990년대 가족연구에서 가족이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었지만 변화의 방향이 직접적 분석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다.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화하지 않는 한국 가족의 가부장성과 남성 중심성이 변화해야한다는 연구들(이효재, 1990, 1995; 조혜정, 1998; 이미경, 1999; 이재경, 1994)은 한국 가족이 어떤 방향으로 변해야하는지를 제시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변화를 촉구하는 식의 주장이었을 뿐 가족 변화에 대한 적극적 가치 판단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변화는 논의되고 있었지만, 방향성에 대한 논의는 소극적이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구통계학적 자료들을 이용하여 가족 구조나 형태에서의 변화를 분석하는 연구들(김승권·장경섭, 2000; 양옥경, 2005; 윤홍식, 2004b; 윤홍식·송다영·김인숙, 2010)이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 가족은 가족의 형태나 구조에서 “다양해지고 있다”는 결론으로 수렴되었

다. “가족 형태의 다양화”는 2,000년대 한국 가족의 변화를 설명하는 압축적 개념이었던 것이다. 이 가족의 다양화를 놓고 연구자들은 이것이 인간과 사회에 긍정적인가 아니면 부정적인가를 묻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질의는 가족 변화에 대한 연구에 전환점을 가져왔다. 가족변화에 대한 적극적 입장 표명, 즉 가족변화에 대한 가치판단적 분석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²⁾.

이렇게 하여 생겨난 한국 가족변화를 보는 관점은 가족이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는 것으로 보는 가족 적응론의 입장(송다영, 2005; 윤홍식, 2003a; 이재경, 2004; 함인희, 2002)과 가족이 해체되거나 붕괴되는 것으로 보는 가족 위기론 입장(이혁구, 1999; 조희금, 2003; 민황기, 2007; 정영금, 2015)으로 나뉜다. 가족 적응론에서는 가족은 사회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구조로 존재하여 왔고, 그렇기 때문에 가족은 단일한 형태의 가족(the family)만을 가족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사회가 변화함으로 가족도 변화하기 마련이며, 현재 한국 가족도 변화하는 사회에 따라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고, 따라서 이것은 가족의 위기나 해체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변화하는 사회에 가족이 적응함으로 사회와 인간 모두에게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적응론자들은 오늘날에도 가족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못한다. 가족의 폐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가족을 원한다는 사실(강수영·권기돈·배은경, 1999; Ross, 1994)이 간과되고 있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나 미래 사회에서 사람들은 친밀감에 대한 욕구를 더 많이 가지게 될 것이며(강수영·권기돈·배은경, 1999; Zaretsky, 1976), 그러한 친밀감을 가족을 통해 성취하려는

경향이 존재하고 있다. 가족이 불편한데도 그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전히 가족을 원하고 살고 있는 사실을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 적응론자들의 설명은 제한적이다.

이에 반하여 위기론자들은 일정한 형태의 가족(the family)을 가족으로 전제하고, 지금의 한국 가족의 변화는 그러한 가족 형태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기에 가족이 붕괴 또는 해체되고 있다고 본다. 더 나아가 위기론자들은 가족의 붕괴는 곧 인간과 사회에 위기를 가져올 것으로 해석하고 현재의 한국 가족의 변화를 염려의 눈으로 바라본다. 위기론자들의 입장은 가족의 회복을 주장하지만 왜 핵가족의 붕괴가 위기가 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지 않아 이들의 가족 회복론은 과거 지향적이거나 복고적 주장이 되고 마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위기론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가족의 위기가 무엇의 위기인지, 왜 위기인지를 설명해야 한다.

지금까지 가족변화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본다. 선행 연구 검토는 가족 변화를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 가족의 구조, 기능, 그리고 가치관이 자주 사용되는 기준임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러한 영역에서의 변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가족변화를 분석하는 데에 있어서 또 다른 관점을 보여주었다.

III. 연구의 목적과 방법론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한국의 가족 변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즉 위기인가 아니면 적응인가의 문제에 답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현재 한국 가족의 변화를 통계적 차원에서 변화의 경향을

2) 이같은 관점의 전환은 2,000년 무렵부터 한국 사회의 사회문제로 부상한 저출산 고령화라는 사회현상에 기인하는 바 크다. 2,000년대에 들어서 한국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가 가져오게 될 혁명적이면서도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고, 그 현상을 제지할 방도가 탐색되기 시작했으며, 당연히 출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족에 관심이 쏟아졌다. 어떻게 하면 가족의 출산력을 높일 수 있는가가 집중 분석되면서 현재 한국 가족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가 위기인가 새로운 적응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논의의 직접적 대상으로 떠올랐다.

살펴보고 그 경향의 특징을 추출하여 낼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 가족변화에 대한 두 가지 입장, 즉 적응론과 위기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한국 가족 변화를 보는 기존의 시각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내고, 그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현재 한국 가족 변화에 대한 보완적 해석을 하고자 한다.

연구를 위한 방법론은 문헌연구와 통계청에서 발표한 여러 가지 통계자료를 분석하는 것이다. 선행 연구의 검토에서 가족의 형태와 기능, 그리고 가치관이 가족변화를 설명하는 중요한 조건임이 밝혀졌기에 본 연구도 가족의 변화를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다. 동시에 본 연구의 중요한 관심은 통계에서 나타난 가족의 변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이므로, 문헌연구를 통해 가족변화를 보는 두 가지 관점-적응론과 위기론을 이론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보완적이며 새로운 관점의 해석을 찾고자 한다.

IV. 통계 자료로 본 한국 가족의 변화

본 연구에서 통계 자료를 살펴 볼 가족변화의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과거 20년으로, 1990년대부터 2010년의 시기에 해당된다. 1990년 이전의 가족변화는 2000년 초기와는 시기적으로 동떨어져 있고 동시에 과거의 가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본 연구의 영역 밖이기에 제외하였고, 2010년 이후의 변화는 통계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영역도 있어서 통계적으로 가능한 2010년까지를 상한선으로 정했다.

1. 변화의 특성

1) 가족 형태의 변화

한국 가족의 변화는 먼저 형태 또는 구조면에서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형태상으로 볼 때, 한국 가족은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부부 핵가족이 가장 많은 가족 형태를 점하고 있지만, 그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오고 있다. <표 1>에서 보이

<표 1> 가족형태별 가구의 변화

(단위: 가구, %)

가족형태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핵가족	부부	17,472 (6.1)	29,432 (8.3)	40,517 (9.9)	52,590 (11.4)	67,000 (13.0)
	부부+미혼자녀	151,628 (52.7)	184,361 (52.0)	207,156 (50.7)	207,297 (45.1)	204,109 (39.6)
	한부모+미혼자녀	24,032 (8.3)	29,647 (8.4)	36,409 (8.9)	46,500 (10.1)	55,526 (10.8)
	조부모+미혼손자녀	-	984 (0.3)	1,270 (0.3)	1,946 (0.4)	1,527 (0.3)
직계가족	부부+양(편)친	1,432 (0.6)	1,868 (0.5)	2,336 (0.6)	2,710 (0.6)	2,946 (0.6)
	부부+양(편)친+자녀	20,554 (7.1)	19,522 (5.5)	17,681 (4.3)	16,407 (3.6)	16,021 (3.1)
기타 가족		45,002 (15.6)	88,903 (25.1)	103,156 (25.3)	132,640 (28.8)	168,726 (32.7)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는 바와 같이 핵가족은 1990년의 52.7 %에서 1995년 52.0%로, 2000년에는 다시 50.7%에서 2005년에는 45.1%로, 그리고 2010년에는 39.6%로 감소했다. 직계가족은 그 감소율이 훨씬 더 커 1990년 7.14%, 1995년 5.5%, 2000년 4.3%, 2005년 3.6%, 2010년 3.1%로 감소하여 왔고, 근래에 이르러서는 가족 형태로서의 존재감이 미미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반면, 한부모 가족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표 1>에서와 같이 한부모 가족은 1990년 8.3%, 1995년 8.4%, 2000년 8.9%, 2005년 10.1%, 2010년 10.8%로 계속 증가하였다. 한부모 가족은 대부분 (1995년 85.4%, 2000년 83.4%, 2005년 81.9%, 2010년 80.6%: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모자가족 이기에 한부모 가족의 증가는 모(母)와 자(子)로 구성된 모자 가족의 가족 형태가 많음을 의미한다.

한편, 이혼율 역시 증가하여 이혼가족의 증가를 가져왔다. 한국의 조이혼율은 1990년 0.96에서 1995년, 1.5, 2000년 2.5, 2005년 2.6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0년에는 2.5로(통계청, 인구통계연보) 약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혼은 다시 재혼으로 이어져 재혼가족도 증가하고 있다.

가족 형태의 변화에서 두드러진 변화는 1인 가족의 증가이다. <표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1인 가족은 1990년 전체 가구의 4.5%를 차지하던 것에서 계속 증가하여 2010년에는 4배가 넘는 23.9%로 폭증하였다.

<표 2> 1인 가구 수의 변화

	1990	1995	2000	2005	2010
가구수	1,021,481	1,642,000	2,224,433	3,171,000	4,142,165
비율(%)	9.1	12.7	16.3	20.0	23.9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이와 같은 통계로 보아 한국 가족은 양부모가족의 비율이 줄고 있고, 그 자리를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채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가족이 형태상

으로 다양해지고 있다는 그간의 연구들의 결론이 재확인되고 있다.

2) 가족 기능의 변화

한국 가족은 기능면에서도 변화해 오고 있다. 가족의 전통적 기능 중에서 중요한 것이 출산의 기능이었다면, 현재의 한국 가족은 그 기능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음을 출산율의 변화가 말해 주고 있다. 한국 가족의 출산율은 1990년 1.57, 1995년 1.63 이후, 로 계속 감소하다가 2010년에는 1.2로 떨어졌다.

가족의 출산 기능의 약화는 기혼여성의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에서도 나타난다. <표 3>에서 보듯이 1997년에는 기혼여성의 73.7%가 “반드시 자녀가 필요하다” 보는 반면 9.4%만이 자녀가 “필요 없다”고 응답했었는데, 자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태도는 점점 감소하고 없어도 된다는 태도는 점점 증가하여 2006년에는 각각 53.8%, 12.1%에 이르고 있다.

출산의 기능은 약해지는 대신 가족의 정서적 기능은 커지고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가족이 정서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사람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가족이 사회적 단위에서 개인적 단위로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3> 기혼여성의 자녀필요성에 대한 태도

(단위: %)

연도	반드시 가져야 한다	갖는 것이 좋다	없어도 무관	모르겠음	전체
1997	73.7	16.6	9.4	0.3	100(5,409)
2000	58.1	31.5	10.0	0.5	100(6,363)
2003	54.5	32.3	12.6	0.6	100(6,593)
2006	53.8	34.1	12.1	-	100(5,382)

출처: 윤홍식·송다영·김인숙, 2001:25

3) 가치관의 변화

한국의 가족은 결혼과 가족에 대한 인식에서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먼저, 결혼에 대한 태도가 변화하고 있다. <표 4>에서처럼 한국인의 60% 이상은 2002년부터 2010년에 이르는 동안 계속 결혼은 꼭 해야 한다고 보거나 하는 것이 좋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점차 결혼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 역시 감소하고 있다. 결혼이 점차 선택의 문제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표 4>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

(단위: %)

연도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좋다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지 말아야 한다	모르겠다
2002	24.8	44.8	26.7	1.8	0.3	1.6
2006	26.5	43.1	26.2	1.7	0.4	2.0
2010	19.4	43.6	31.3	2.6	0.7	2.3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비혼이나 만혼의 경향도 높아지고 있다. 초혼연령은 1990년 남자 27.8세, 여자 24.8세, 1995년 각각 28.4세와 25.4세, 2000년 29.3세와 26.5세, 2005년 30.9세와 27.7세, 2010년 31.8세와 28.9세, 2015년 32.6세와 30.0세로 상승하여 갈수록 결혼을 늦게 하거나 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이혼에 대한 태도는 점점 허용적이 되고 있다. 1998년에는 “이혼은 절대 안 된다”가 남성 19.9%, 여성 18.1%였는데, 그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10년에는 남성 16.0%, 여성 13.7%로 감소하였다(<표 5> 참조). 이혼이 증가하고 이혼에 대한 태도도 허용적이 되면서 재혼에 대한 태도도 허용적인 쪽으로 바뀌고 있다. 2002년에 “재혼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다”와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한다”가 남성 21.4%, 여성 15.8%였으나, 그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10년에는 남성 16.7%, 여성 8.7%를 보이고 있다.

한국 가족은 결혼과 가족 관련 가치관 면에서

2010년에 가까울수록 점점 더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허용하는 쪽으로 변화하여 결혼과 가족에 대한 전통적 태도가 붕괴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통계적 차원에서 한국 가족의 변화를 검토해 보았다. 종합하자면 한국 가족은 분화를 거듭하면서 그 구조면에서 다양해지고 있고, 기능면에서 출산과 양육의 기능은 쇠퇴하고 행복의 기능은 높아지고 있으며, 가치관의 면에서는 가족이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표 5> 이혼에 대한 태도 변화

(단위: %)

연도	성별	절대 안된다	가급적 하지 말아야 한다	경우에 따라 할 수 있다	이유가 있으면 하는 것이 좋다	모르겠다
1998	여성	18.1	38.9	31.4	9.7	1.9
	남성	19.9	43.8	26.7	7.3	2.2
2006	여성	17.0	39.2	34.5	8.1	3.6
	남성	22.0	36.8	24.0	5.4	4.4
2010	여성	13.7	37.5	39.5	7.8	1.6
	남성	16.0	41.0	30.5	8.3	4.2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표 6> 재혼에 대한 견해

(단위: %)

연도	성별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좋다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한다	모르겠다
2002	여성	1.7	18.0	50.5	16.8	4.6	8.3
	남성	2.3	23.7	49.3	12.7	3.1	8.9
2006	여성	1.1	18.4	51.7	13.5	4.3	11.1
	남성	2.7	28.2	45.9	7.6	3.1	12.5
2010	여성	1.3	16.6	57.8	13.8	2.9	7.6
	남성	1.8	24.4	56.4	6.6	2.1	8.6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V. 변화의 해석

1. 적응인가 위기인가?

위에 살펴 본 한국 가족의 변화를 어떻게 해석 할 것인가는 연구자에 따라 다르다. 적응론자들은 그것을 변화하는 가족 환경과 사회에 가족이 적응 하며 변화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가족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 위 기론자들은 가족이 해체 또는 붕괴하는 것으로 파악하여 변화를 염려의 시각으로 바라본다. 무엇이 이러한 시각의 차이를 가져왔는가? 각각의 시각에서 문제는 없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변화를 보는 이 두 가지 시각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그 검토 위에서 현재의 가족변화를 해석해 보고자 한다.

1) 적응으로서의 가족 변화

한국 가족의 변화를 가족의 적응으로 보는 연구 들(송다영, 2005; 윤홍식 2003a, 2004a, 2004b; 이재경, 2004; 함인희, 2002)은 한국 가족이 위치하고 있는 사회가 변화하고 있고, 그러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가족 또한 변하고 있다고 보고, 변화 하는 사회에 가족이 적응하고 있는 현상으로 변화를 이해한다. 역사적으로 가족은 똑같은 형태로 존재해 오지 않았고, 사회와 환경에 적합하게 항상 변화해 왔다. 사회가 변화하면 가족도 변화에 맞추어 적응하게 마련이다. 과거에는 부부 중심의 가족이 가족 형태의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사회가 분화함에 따라 가족의 형태도 분화하고 있고, 가족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적응론자들에게 한국 가족의 구조 변화는 ‘가족의 다양화’로 이해된다. 그리고 가족의 다양화에 대한 적응론자들의 인식은 긍정적이다. 그들은 가족의 다양화를 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감소시킬 수 있는 조건으로 본다. 부부와 자녀로 구성되는 부부가족을 가족(the family)으로 인식하고, 그

같은 형태가 아닌 가족은 가족이 아닌, 즉 비정상 가족으로 인식하는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를 해체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이재경, 2004).

그러나 가족 구조의 변화를 가족 형태의 다양화라고 결론짓는 데서 끝나는 적응론자들의 분석은 한국 가족의 변화를 단순화하거나 그 변화의 의미를 깊게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가족의 구조에서 “핵”이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가족의 구조의 변화는 형태의 다양화를 넘어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이라는 구조가 가족 구성의 중심으로서 차지하는 부분이 약해져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역사적으로 가족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 왔지만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은 항상 가족 구조의 중심을 이루어 왔기 때문에, 이 핵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은 가족의 특성이나 기능에서 중요한 의미를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의 구성에서 부부와 자녀의 “핵”이 약화되고 있는 핵의 약화가 의미하는 바에 초점을 맞추어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분석할 때 가족변화가 미치는 영향이 심층적으로 분석될 수 있다.

또한 적응론자들의 인식하고 있는 “가족의 다양화”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도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 그들은 가족의 다양화에 따라 가족이 한 가지 형태(the family)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families)로 존재할 수 있고, ‘정상’과 ‘비정상’ 가족을 구분하는 차별과 편견이 감소될 수 있는데, 이것은 확대가족이나 핵가족이 여성에게 행사해 온 차별도 그러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족의 다양화가 여성의 지위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부분적이다. 다양한 가족의 한 형태인 모자 가족이나 이혼 가족 또는 재혼 가족이 그러하다. 여성 한부모 가구는 한부모가 됨으로써 그 이전보다 소득이 1/3에서 반 정도까지 감소하여(강지원, 2009; 김학주, 2006; 윤홍식, 2003b) 한부모 가정의 여성이 부부가족의 여성보다 경제적 지위가 낮고, 낮은 경제적 지위는 낮은 생활만

족도로 나타나(곽민주·이희숙, 2014; 김학주, 2006) 이혼 가족이나 한부모 가족의 여성들의 생활 만족도는 부부가족의 여성의 생활 만족도보다 높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여성의 지위를 올리는 것만은 아닌 것이다.

이처럼 한국 가족의 변화를 가족 형태의 다양화에만 의지하는 설명은 제한적이거나 피상적이다. 적용론자들의 ‘적용’에 관한 설명은 대부분 가족의 다양화라는 개념에 머물러 있어 한국 가족의 변화가 동반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파헤치지 못하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2) 위기로서의 가족변화

위기론자들은 한국의 가족 변화를 가족의 붕괴 내지 해체로 보며 현재의 가족변화에 대해 우려를 보인다(이혁구, 1999; 민황기, 2007; 조희금, 2003). 이들은 일정한 형태의 가족, 즉 부부가족을 가족으로 상정한다. 그들에게 가족은 “혈연이나 입양을 통한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집단”(건강가정기본법 3조 1항)을 말하며, 현재의 한국 가족의 변화는 그러한 구조가 와해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기로 평가된다. 더 나아가 부부가족의 붕괴는 구조의 붕괴만이 아니라 가족 윤리의 붕괴를 가져온다는 면에서 위기로 인식된다. 가족은 가족관계를 통해 인간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본 윤리와 가치를 제공하는데, 가족의 붕괴는 이러한 유대나 윤리를 와해시킨다는 것이다(이혁구, 1999; 이태훈·최석만, 2006). 적용론자들과는 달리 위기론자들에게 가족 형태의 다양화는 곧 가족의 붕괴이다.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형태를 가족으로 보고 현재의 가족변화는 이러한 형태의 가족이 와해되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가족위기라고 보는 위기론자들의 주장은 적용론자들로부터 핵가족 이데올로기에 대한 옹호나 복고적 향수로 비판받는다. 위기론자들은 “가족의 특정한 형태의 변화를 가족의 해체로 이해하는 것은 가족이 지역과 시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했고, 변화했다는 다양성과 역

동성을 부정하고(윤홍식, 2004a), 역사적으로 오로지 부부가족이라는 한 가지 형태의 가족만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비역사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재경, 2004: 231). 가족은 항상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 왔음을 염두에 둔다면 어느 일정한 형태의 가족만을 가족으로 인정할 근거는 없기에 부부가족의 통계적 점유율 하락이 곧 가족의 위기로 해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위기론자들은 부부 가족을 ‘정상 가족’으로 보고 그것으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비역사적이며 복고적인 가족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받는다. 오늘날의 가족이 변화도 그러한 역사적 경향에 비추어 볼 때 가족의 형태가 바뀌고 있을 뿐, 위기가 될 수 없다는 점이 위기론자들에 대한 적용론자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위기론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다. 적용론자들이 주장하듯 역사적으로 사회에는 부부가족 외에도 다양한 가족 형태가 존재했고 핵가족이 대표적 가족형태로 존재해왔던 것은 역사적 가족연구(Anderson, 1980; Elliot, 1986; Laslett & Wallsend, 1972)들도 증명해주고 있는 사실이지만, 적용론자들은 그것이 어떤 형태로 존재해 왔는가와는 무관하게 가족은 부부와 자녀라는 “핵”을 중심으로 하여 구성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가족 구성에 “핵”이 항상 존재해 왔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가족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법적으로 결혼을 하거나 또는 하지 않거나와 상관없이) 부부가 존재하고, 부부가 존재하면 평균적으로 자녀가 또한 존재한다. 이 부부와 자녀라는 핵에 다른 구성원이 더하여지거나 감하여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재해 왔다. 그러한 면에서 부부와 자녀라는 핵은 가족 구성의 기본 조건이었다. 오랫동안 부부와 자녀가 가족 구조의 핵으로 존재해 왔기에 가족의 문화나 생활 또한 그 핵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어 왔다. 따라서 핵의 변화는 가족생활에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 이 점은 가족변화를 논할 때 기억되어야 할 사실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한국가족의 변화는 부부와 자녀라는 핵의 약화이다. 이러한 “핵”의 구조적 약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가족변화 관련 토의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부부와 자녀라는 핵이 오랜 세월동안 가족 구성의 중심축이었다는 면에서 현재의 한국 가족변화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의 약화라는 면에 맞추어 분석되어야 한다.

한편, 가족의 변화를 가족의 핵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면에서 위기론자들의 주장은 가족의 변화가 가져오는 영향을 정조준 할 수 있는 설명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그러나 위기론자들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이 붕괴하고 있는 현상을 염려만 할 뿐, 그것이 ‘어떻게’ 가족의 위기가 되는 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럼으로 인해 가족 존재의 중요성이나 회복을 주장하는 위기론자들의 주장은 적용론자들이 비판하듯이 가부장적이거나 복고적인 수준에 머물고 미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전형적인 부부가족은 성차별적이거나 가부장적이라는 위기론자들의 주장은 정확하다. 따라서 부부가족의 구조 변화가 왜 위기가 되는지에 대한 설명 없이 가족의 위기를 말하는 것은 복고적 성향을 면할 수 없고(윤홍식, 2004b; 이재경, 2004), 민주와 평등이라는 시민 사회적 요청에 역행한다. 가족의 변화를 핵에 맞추되 그 핵의 붕괴가 왜 위기가 되는지를 설명해야 가족 구조 변화의 함의가 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

2. 새로운 관점에서의 가족변화

가족변화를 설명할 때 부부와 자녀로 구성되는 “핵”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면, 왜 그러한가? 부부와 자녀라는 핵의 약화가 가져오는 변화는 어떤 것인가? 이는 핵이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함으로써 드러날 수 있다.

가족은 인간 사회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 제도라는 사실은 제도로서의 가족의 기능을 시사한다. 인간은 일정 기간 또는 그 이상의 보살핌이 없

는 생존이 불가능한, 즉 보살핌(caring)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제한성으로 인해 사람들을 일정 기간 동안 돌보고 보살피 그들의 생명을 연속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제도로서 가족이라는 제도가 생겨난 것은 자연스럽다. 다시 말하자면 가족은 인간의 존재론적 한계로부터 인간의 생존 내지는 생명의 연속과 성장을 위해 어떤 제도가 필수적으로 요청되었고, 그 요청에 부응한 제도가 가족인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요청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다. 생명의 연장과 성장을 위해 가족이 요청된 것은 개인의 편에서 본 가족의 필요성이라면 사회의 편에서 요청된 가족의 필요성은 질서와 가치의 유지 및 계승에 있다. 질서가 없는 사회가 존속할 수 없다. 그리고 사회의 질서는 가능하면 강제적이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때 효과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사회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실천하며 적용하는 가치들이 있을 때 사회의 질서는 보다 효과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가족이 수행해온 다양한 기능 중에서 원초적이며 기본적인 기능은 생명 유지와 성장, 그리고 가치와 도덕의 실천 및 계승이라고 할 수 있다. 얼핏 보면 진부해 보이는 이 두 주제를 오늘날의 현실에 맞추어 심층적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다.

1) 생명으로서의 가족

사람이 태어나면 그는 즉시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고 그 이후로 비교적 오랫동안 누군가의 보살핌과 양육은 그 아이의 성장과 발달에 필수적이다. “누군가에 의존함 없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허라금, 2005: 218) 아이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애착 이론”은 어린 아이가 성장하는 데에 있어 특히 부모와 아이 사이의 집착과 사랑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말해준다. 이 돌봄의 필요성을 적절하게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부모, 특히 양(兩)부모이다. 자녀에게 부모는 가장 적합한 양육자이다. 가정의 일차 양육자와의 안정된 관계 형성은 아이가

어릴 때는 말할 나위 없고 성인이 된 뒤에도 그의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하다(Ainsworth et al., 1978; Kohut, 1971; 홍이화 2013).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성되는 사랑과 애착의 관계는 아이가 발달학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는 데에 기본적 조건이다. 생명을 생명의 원리에 맞게 키워가는 일은 일차적으로 그 생명을 낳은 이들, 그리고 그와 관계된 이들, 즉 가족의 핵심 역할이다.

한부모 가족에 대한 연구들 중(박옥임 외, 2013: 145; 조성연, 2004)에는 한 쪽 부모 특히 어머니와 사는 한부모 가족의 아이들이 자율성과 책임의식이 높고, 가족원간의 친밀감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하여 한쪽 부모와 자라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아동학대에 관한 보고들은 친부모가 주된 가해자임을 밝혀 양 부모가 항상 아이들의 적절한 양육자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양부모 가족도 아동 양육에 최적합한 곳이 아닐 수 있고 한부모 가족도 아이 양육에 양호할 수 있다.

그러나 더 많은 연구들이 한부모 가족의 자녀들이나 부모의 관계 만족도나 생활만족도는 낮은 편임을 보고하고 있다(권복순, 2000; 장혜경·민가영, 2002; 김경신, 2003; 조성연, 2004). 또한 평균적으로 볼 때 아이들의 성장에 양부모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동학이나 심리학의 일반적 명제이다. Freud의 오이디푸스(oedipus complex)나 일렉트라 콤플렉스(electra complex) 이론은 아이의 성장에 양부모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아동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오이디푸스, 일렉트라 콤플렉스가 역동적으로 극복되어야 하는데, 그 극복의 중앙에 양친 부모의 존재가 있다. 아이들은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애증의 갈등을 경험하면서 그 경

험을 통해 자신의 정체감과 관계의 기술을 터득해 간다(설영환, 2014, 1964; Lamb, 1976). 양부모와 갖게 되는 관계의 역동에 대한 경험은 아이들의 심리적 발달에 중요하다.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부모 특히 양(兩)부모라는 핵이 중요하다.

어머니와 아버지로 구성된 핵이 어린 아이의 양육에 최적의 조건이라는 사실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의 기본적 기능이 생명의 양육임을 의미한다. 핵은 다음 세대가 태어나고 양육되며 성장하는 것에 요구되는 기본적 구성인 것이다. 가족의 주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재생산과 양육이며(Ross, 1994: 111), 이는 “인생의 어떤 시기도 누군가의 보살핌에 의존함 없이 유지되는 삶을”(허라금, 2005: 218) 살수 없다는 인간의 존재론적 특성에서 야기되는 요청에서 비롯된다. 생명의 재생산과 양육에 가족의 핵이 가장 적합함은 실패한 공산사회의 공동 육이나 결국은 개별 가정의 양육으로 환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키부츠식 양육방식에서도 증명되고 있다. 아이는 부모의 양육을 받아 성장할 권리가 있다(Ross, 1994: 115). 이러한 맥락에서 가족은 “건강가정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듯이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기본 단위”(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제1호)이며,³⁾ 가족의 핵과 관련된 중요한 기능은 재생산과 양육이다. 그러므로 “핵”의 약화는 생명으로서의 가족 기능이 쇠퇴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이러한 면에서 현재 한국 가족의 변화는 위기로 볼 수 있다.

2) 미덕으로서의 가족

인간은 관계적 존재이다.⁴⁾ 사람은 출생 직후부터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간됨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3) 그러나 이것은 건강가정 기본법도 명백히 하고 있듯이(제15조2항, 제21조 4항) 혈연과 입양에 의하지 않는 다른 가족을 가족 정책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가족의 목표는 부부 핵가족이며, 지향점임을 것을 강조하는 것일 뿐 “다양한 가족”을 가족 정책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4) 인간을 독립적이며 자유로운 존재로 규정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근대 사회가 형성되면서 나타난 개념이고, 그보다 오래 그리고 지속적으로 인간은 관계적 존재로 인식되어 왔다(Rawls, 1971).

의 관계가 필수적이다. 사회화 이론이 말하듯이 인간은 관계 속에서 문화를 배워 인간다움을 갖추어 간다. 그리고 그 같은 과정에서 가족, 특히 가족관계는 핵심적 역할을 한다.

가족이 인간을 사회화 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가족관계이다. 가족관계의 기본은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이다. 사람이 결혼을 하면 부부관계가 형성되고, 이들이 자식을 낳으면 낳은 사람과 태어난 아이 사이는 부모자녀관계가 성립된다. 모든 아이가 자신을 낳은 생물학적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것은 아니지만⁵⁾, 태어난 아이는 생물학적 부모에 의해 양육을 받는 경우가 그렇지 않는 경우보다 더 많다. 그리하여 자식은 태어나자마자 그 부모에게 태어났다는 생물학적 사실로 인해 자녀가 되고 그 아이를 낳은 사람은 부모가 되어 저절로 부모자녀 관계가 형성된다.

그런데 부모 자녀관계나 부부관계와 같은 가족관계는 어떤 도덕이나 윤리의 실천을 전제로 한다. 거의 모든 사회에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라는 가치가 장려되듯이 인간 사회는 모두 가족원 간의 도덕과 윤리를 설정하고 실천을 권유한다. 부부관계나 부모 자녀관계가 원초적(primitive)관계이기 때문에 이들 가족관계에 적용되는 도덕이나 윤리는 인륜이라는 이름으로 한 사회의 도덕이나 가치의 기초가 된다. 가족은 “도덕의 출발점”(이창신, 2010: 311)인 것이다.

가족은 이처럼 원초적 도덕에서 더 나아가 시민사회가 필요로 하는 타자적 가치를 장려할 수도 있다. Hegel은 가족에서 길러진 양보와 존경과 포용과 사랑이 시민사회의 작동에 기여한다고 했다(배장섭, 2000: 61-81). 이는 부부관계나 부모자녀 관계는 대대적(dual) 관계로 상대방이나 전체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지위와 역할을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에 연유한다. 대대적 존재로서의 자기

인식 또는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자기 인식은 독립적인 개인은 할 수 없는 것, 즉 그(녀)가 개인적 존재로서 존재할 때에는 필요 없는 도덕적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Sandel, 2010: 164). 관계를 통해 타자적 윤리와 도덕을 학습하는 과정을 Sandel은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설명한다.

“자신을 자유롭고 독립적인 자아로 여긴다면, 그래서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도덕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칭찬하기까지 하는 다양한 도덕적, 정치적 의무를 이해할 수 없다. 여기에는 연대와 충직의 의무, 역사적 기억과 종교적 신념에 관한 의무가 포함된다. 이는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한 공동체와 전통이 요구하는 도덕이다. 우리 자신을 ‘부담을 감수하는 자아’로 여기지 않는 한, 즉 내가 정하지 않은 도덕적 요구도 받아들일 자세도 취하지 않는 한, 우리가 경험하는 도덕과 정치에서의 그 의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란 어려운 일이다”(이창신, 2010: 271).

Sandel을 위시한 공동체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미덕이나 도덕은 인간이 독립적 개인으로 살 때보다 관계적 존재로 살 때 학습되고 체화되기 쉽다. 자유롭고 독립적인 자유주의적인 인간 존재는 아무에게도 관련되어 있지 않는 “무연고적 자아”(이창신, 2010: 190)로 자유와 평등에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 독립적이며 자유로운 존재로서의 가치의 중심은 개인이며 자아의 정당한 확보이다. 따라서 개인 그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인간이 독립적인 존재로 존재할 때와는 달리 관계 안에 존재하게 되면 관계에 관한 가치들이 중요한 가치가 된다. 자유와 평등 외의 가

5) 인류학적 조사에 의하면 어떤 사회는 임신과 출산에서 어머니나 아버지 단지 한편만이 부모로 인지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Edholm, 1982). 현대 사회에서도 미국의 저소득층에서도 태어난 아이를 어머니나 아버지가 아닌 조부모나 기타 친구가 양육하는 경우가 있다(안호용 외, 1997: 100).

치 즉, 배려, 수용, 헌신, 희생 등의 가치가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된다.

또한 가족 관계는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는 영속성을 갖는다는 점도 가족의 도덕성을 증대시킨다(서선희, 2016). 도덕이나 미덕이 삶에서 실천되기 위해서는 “그저 내가 보유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가치” 그 이상, 또는 “자연적 의무” 그 이상의 무엇”(이창신, 2010: 190)이어야 한다. 사람들이 자발적 책임으로 도덕을 받아들이고 실천하고자 할 때 의무적 실천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그 영향력이 지속될 수 있다. 비교적 영속적이며 일차적인 특성을 갖는 가족관계로 인해 가족 관계에 적용되는 도덕은 지속적이며 임의성이 낮다. 부모-자녀 관계에 따라 자녀의 부모에 대한 공경과 부모의 자녀에 대한 자애(사랑)의 도덕이 수반되는데, 이 도덕은 부모-자녀 관계가 지속되는 한 계속하여 존재하게 된다. 즉, 부모-자녀 간의 도덕은 부모-자녀 관계의 영속성으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실천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 것이다. 가족이라는 공동체로서의 특징과 제도로서의 상대적 영속성이 도덕의 자발성과 영향력을 지속시킬 수 있는 힘이 가족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가족이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연구자들은(신용하·장경섭, 1996; 이재경, 1994) 전통적인 한국 가족의 가치 중의 하나가 가족중심주의임을 지적하며, 그로 인해 한국 가족은 오로지 자기 가족만의 안녕과 복지에만 집중하는 이기성을 보여왔고, 더 나아가 혈연, 지역, 학연을 중시하는 연고주의를 만들어내어 오히려 시민사회의 발전을 저해하여 왔다고 비판한다. 특히 한국 문화에서 가족이 이기적이거나 파당을 만들어내는 원인으로서 작동해 온 것은 사실이다. 가족은 지위와 부의 상속, 전통적 가족에 내재되어 있는 가부장성, 또는 가족이기주의로 인해 부정의(unjust)한 속성을 내포하고 있기도 한다(이효재 외, 1991).

그러나 가족이 갖는 폐단에만 집중한 나머지 가

족의 미덕(virtues)이 경시되어 온 면이 있다. 가족의 악덕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미덕을 갖고 있다.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는 가족의 핵심관계이고, 이 관계는 인륜이라는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을 내포한다. Sidgwick(Ross, 1994: 114 재인용)이 주장하듯이 가족관계, 즉 부부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 내재되어 있는 가치들은 단순한 제도 그 이상의 중요성을 갖는다.

이렇듯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가족의 핵은 양육과 재생산이라는 기능을 통해 존재론적으로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보살핌을 제공하여 생명이 자라나고 지속되고 계승되도록 가능해 왔다. 또한 인간과 사회에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의 출발점으로 가능해 왔다. 핵의 약화는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가족의 기능인 생명으로서의 가족과 미덕으로서의 가족 기능을 와해시킴으로 인간과 사회의 질서와 삶의 방식에 대 전환을 가져오는 변화이다. 가족의 차별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가족변화는 인간의 삶의 방식의 기초를 흔들고 있다는 면에서 위기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VI. 결론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족변화는 지금까지 가족 형태의 다양화로 설명되어 왔다. 그러나 가족의 변화를 ‘형태의 다양화’로만 설명하면 설명이 기술적(descriptive) 수준에 머물게 된다. 가족 변화의 방향이 붕괴인가 적용인가를 논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가족의 변화가 인간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변화인지가 설명되어야 한다.

현재의 한국 가족의 변화는 형태의 다양화를 넘어 ‘핵’의 붕괴를 말한다. 한국의 가족변화는 인간의 삶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단위로서의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의 붕괴를 의미하며, 이는 그동안 가족이 수행해 오던 생명으로서의 가족과

미덕으로서의 가족 기능이 약화되고 있음을 말한다. 핵의 붕괴는 “기성의 가족가치와 구성 원리의 해체이며, 가족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되묻는 구조변동이다”(김혜영, 2006: 20). ”핵“의 붕괴로서의 가족변화는 인간과 사회의 기반을 흔든다는 면에서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삶의 방식의 위기를 의미한다 (Popenoe, 1988, 이혁구, 1999: 222 재인용).

현재의 가족변화를 긍정적으로 보는 태도는 현대 사회가 개인을 중시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의 욕구 실현과 선택의 자유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가족을 보는 시각도 이 관점을 따른다. 즉 가족이 개인의 행복과 자유를 얼마나 증진시키고 보장하는가가 가족을 진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바람직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다운 가치체계와 역할정립인가 아니면 개인적 창의력과 잠재력을 실현시킬 수 있는 자유와 자율적 역량인가?“ (이혁구, 1999: 221)를 물어야 한다. 개인의 행복이라는 기준만으로는 행복한 사회를 구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다운 삶에는 자유 못지않게 연대나 연합이 중요하고, 독립만이 아니라 관계도 중요하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되어 서로 협력하고, 나 자신만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행해지고, 새 생명이 태어나도록 격려하며, 태어난 생명을 건강하게 양육하는 것이 인간다운 시민사회를 지향하기 위한 기초이다. 연결과 관계, 협력과 배려, 관용과 양보 등과 같은 초개인적 가치는 인간다운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가치들이다. 그러한 가치들을 배양하고 실현하는 기반 중의 하나가 가족이며, 그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한 사회의 발전에 긍정적일 수 없다(서선희, 2011).

한 사회의 정서적 건강과 도덕적 안정을 위한 두 가지 기능의 기초가 가족이라고 볼 때 가족정책은 가족이 생명으로서의 기능과 도덕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하는 방향에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관점으로서의 가족’의 개념이 지금보다 더 분명하고 설정되게 광범위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물론 가족 정책에서 ‘관점으로서의 가족’의 개념이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가족자원경영학적 관점”(정영금, 2008)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연구들이나(정영금, 2008, 2009, 2015; 성미애·송혜림, 2008; 조희금·서지원, 2009; 윤소영·김하늬·고선강, 2009) 건강가정지원법 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들에는 관점으로서의 가족이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가족가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분명하지 않고, 독립된 관점으로서의 가족관점의 개념 설정 또한 분명하지가 않다. 가족가치에 대한 개념적 합의를 이끌어 내어 그것을 분명히 하고, 그 가치에 기반 하여 가족정책이나 사업들의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하며 평가하는 관점을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가족가치, 즉 미덕과 생명으로서의 가족 그리고 가족의 ‘핵’을 중시하는 관점을 가족정책에 적용을 한다면, 예를 들어 ‘저출산 고령화’ 정책은 노동력 확보가 아니라 생명 탄생과 양육이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마음 놓고 아이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의 조성뿐만 아니라 아동의 생명권이나 양육 받을 권리의 보장 등을 포함한다. 가족정책의 방향도 치료보다는 예방, 특히 가족의 핵을 유지·강화하는 방법의 모색에 맞추어질 것이다. 가족관계가 살아나거나 회복되도록 가족 상담이나 가족 치료가 가족관계학 분야에 핵심 부분으로 통합되거나 이혼 교육이나 정책에 아동 중심의 관점이 보다 더 많이 도입되는 것은 그 한 방법일 것이다. 다양한 시민적 가치-성실, 신중, 절제, 용기, 정의, 후회, 연민, 단순, 순수, 유순, 사랑 등(조한경, 2012)의 가치와 가족과의 관계나 통합 방법을 찾는 연구나 정책을 모색하는 것도 효율적일 것이다. 종종 가족과 대치되는 입장에 있는 여성의 이익이나 개인의 자유나 다양성이 가족 관점과 접합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접합점이 가족 정책이란 가족 가치의 실현과 가족의 ‘핵’

이 안정되도록 돕는 것이라는 사실을 밀어내는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강수영·권기돈·배은경 역(1999). 사랑은 지독한, 그러나 너무나 정상적인 혼란, Beck, U. & Beck-Gernsheim, E. Das ganz normale chaos der liebe. 서울: 새물결.
- 2) 강지원(2009). 국제비교를 통해 본 한국의 한부모가족정책. 보건사회연구, 29(2), 30-54.
- 3) 광민주·이희숙(2014). 배우자유무에 따른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경제적 요인의 효과분석. Finacial planning, 7(2), 65-94.
- 4) 권복순(2000). 모자가족의 어머니와 자녀가 지각한 가족기능의 특성. 한국사회복지학, 40, 5-37.
- 5) 권오주·김선영·노영주·이승미·이진숙 역(1991). 페미니즘 시각에서 본 가족, Thorne, B. & M. Yalom(1982). Rethinking the family: some faminist questions. 서울 ; 한울 아카데미.
- 6) 김정신(2003). 한부모가족을 위한 교육 및 상담 활성화 방안 및 효율적 전달체계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1(7), 73-89.
- 7) 김승권·장경섭(2000). 한국 가족의 변화와 대응방안. 서울 :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 8) 김학주(2006). 유자녀가구 유형별 빈곤의 사회경제적 특성연구 : 남성한부모가구, 여성한부모가구, 양부모가구 비교분석. 한국인구학, 29(3), 73-87.
- 9) 김혜영(2006). 가족문화의 재고. 보건복지포럼, 115호, 20-34.
- 10) 또 하나의 문화(1991). 새로 쓰는 사랑 이야기 1. 서울 :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 11) 또 하나의 문화(1996). 새로 쓰는 결혼 이야기 1. 서울 :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 12) 민황기(2007). 가족 공동체 의식의 제고방안. 동서철학연구, 43, 347-366.
- 13) 박숙자(1995). 가족관계의 변화. 여성한국사회학 편. 한국가족문화의 오늘과 내일. 서울 : 사회문화연구소. 91-134.
- 14) 박옥임·서선희·김경신·옥경희·박준섭·최은정(2013). 가족복지학. 서울: 공동체.
- 15) 법제처. 건강가정기본법(법률 제 14440호), <http://www.law.go.kr/>.
- 16) 배장섭(2000). 헤겔의 가족철학. 서울 : 얼과알.
- 17) 서선희(2011). 가족가치에 대한 재고.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5(1), 137-155.
- 18) 서선희(2016). 가족은 정의롭지 못한가?. 사회사상과 문화, 19(3), 117-145.
- 19) 설영환 역(2014). 프로이트 심리학 해설. Osbon, R. An autobiography: G. Freud. 서울 : 선영사.
- 20) 성미애·송혜림(2008). 사회투자론적 관점에서 본 새 정부의 가족정책 : 분석과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1(4), 1-14.
- 21) 송다영(2005). 가족가치 논쟁을 통해서 본 여성의 사회권.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5 전기학술대회 자료집. 117-142.
- 22) 신용하·장경섭(1996). 21세기 한국의 가족과 공동체 문화. 서울 : 지식산업사.
- 23) 심영희·정진성·윤정로(1999). 모성의 담론과 현실. 서울 : 나남출판.
- 24) 양옥경(2005). 가족과 사회복지.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25) 여성한국사회 연구회 편(1992).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서울 : 사회문화연구소.
- 26) 윤소영·김하늬·고선강(2009). 일·가정 균형을 위한 기업의 가족친화정책 실시, 활용 및 요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3(1), 1-21.
- 27) 윤홍식(2003a).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의 법제화를 반대하여. 가족해체 방지 및 건강가정육성의 지원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99-103.

- 28) 윤홍식(2003b). 이혼 및 별거로 인한 모자가정의 빈곤화와 사회안전망의 역할. 한국사회복지학, 53, 51-73.
- 29) 윤홍식(2004a). 가족의 변화와 건강가정기본법의 대응: 한국 가족정책의 원칙과 방향 정립을 위한 고찰, 한국가족복지학, 14, 264-293.
- 30) 윤홍식(2004b). 가족구조의 변화에 대한 한국 사회의 담론과 전망. 사회복지, 161, 6-27.
- 31) 윤홍식·송다영·김인숙(2010). 가족정책: 복지국가의 새로운 전망. 서울 : 공동체.
- 32) 이광규(1975). 한국가족의구조분석. 서울 : 일지사.
- 33) 이미경(1999). 신자유주의적 ‘반격’ 하에서의 핵가족과 ‘가족의 위기’: 페미니즘 적 비판의 쟁점들. 서울 : 공감.
- 34) 이재경(1994). 현대 가족의 반사회성. 철학과 현실, 가을, 67-75.
- 35) 이재경(2004). 한국 가족은 ‘위기’인가?-건강가정 담론에 대한 비판. 한국여성학, 4, 229-244.
- 36) 이창신 역(2010). 정의란 무엇인가, Sandel, M.J. 2009. Justice: what is the right thing to do?. 서울 : 김영사.
- 37) 이태훈·최석만(2006). 보편적 세계인식의 원리로서 가(家). 사회사상과 문화, 13, 515-552.
- 38) 이혁구(1999). 탈근대 사회의 가족변화와 가족 윤리. 한국가족복지학, 4, 219-242.
- 39) 이효재(1971). 도시인의 친족관계. 서울 : 한국연구원.
- 40) 이효재(1990). 한국 가부장제의 확립과 변형. 여성한국사회편. 한국가족론. 서울 : 까치. 1-34.
- 41) 이효재(1995).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가족. 여성한국사회 편, 한국가족문화의 오늘과 내일. 서울 : 사회문화연구소. 9-22.
- 42) 이효재·박혜인·박숙자·윤형숙·박민자·안정남 (1991).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혼인. 서울 : 또 하나의 문화.
- 43) 장혜경·민가영(2002). 이혼여성의 부모역할 및 자녀양육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정책보고서. 서울 : 한국여성개발원
- 44) 정영금(2008). 가족자원경영학적 관점에서 본 일-가정 균형 정책에 대한 평가와 방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2), 1-14.
- 45) 정영금(2009). 일-가정 균형과 관련된 법과 정책의 비교고찰.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3(2), 1-14.
- 46) 정영금(2015). 가족가치 확산을 위한 정책 과제와 대안.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9(1), 73-92.
- 47) 정은희(1993). 여성과 성 그리고 문화.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여성과 한국사회. 서울 : 사회문화연구소. 273-301.
- 48) 조성연(2004). 여성 한부모가족의 모-자녀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0), 153-167.
- 49) 조한경 역(2012). 미덕이란 무엇인가, Comte-Sponville. Petit traite des grandes vertus. 서울 : 까치.
- 50) 조혜정(1988). 한국의 여성과 남성. 서울 : 문학과 지성사.
- 51) 조혜정(1998). 성찰적 근대성과 페미니즘: 한국의 여성과 남성 2.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 52) 조희금(2003). 국가는 왜 건강한 가정의 육성을 지원해야 하는가. 가족해체 방지 및 건강가정 육성의 지원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105-107.
- 53) 조희금·서지원(2009). 일-가정 균형을 위한 가정생활 영역의 정책적 요구: 자녀돌봄 및 가사노동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3(1), 61-81.
- 54) 최재석(1982). 현대가족 연구. 서울 : 일지사.
- 55)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인구주택총조사, 사회조사. 각 년도.
- 56) 한남제·김현주·장현섭·김동일·김초강(1994). 한국가족관계의 문제. 서울 : 다산출판사. 11-48.
- 57) 함인희(2002). 한국가족의 위기: 해체인가, 재

- 구조화인가. 가족과 문화, 14(3), 163-184.
- 58) 허라금(2005). 성주류화 정책 패러다임의 모색: '방전'에서 '보살핌'으로. 한국여성학, 21(1), 199-244.
- 59) 홍이화(2013). 하인즈 코헛의 자기 심리학 이야기. 서울 : 한국심리치료연구소.
- 60) Ainsworth, M.(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 J.: Erlbaum.
- 61) Anderson, M.(1980). Approaches to the history of western family 1500-1914. London: MacMillan.
- 62) Edholm, F.(1982). The unnatural family. in Whitelegg et al. The changing experience of women. Oxford: Martin Robertson.
- 63) Elliot, F. R.(1986). The family: Change or continuity?. Houndmills, Hampshire: Mac Millan Education, Ltd.
- 64) Kohut, H.(1971). The analysis of the self. N.Y.: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65) Lamb, M. E. ed.(1976). The role of father in child development. N.Y.: Wiley.
- 66) Laslett, P. & R. Wallsend.(1972). Household and family in past time. Boston: Cambridge Univ. Press.
- 67) Rawls, J.(1971).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68) Ross, J.J.(1994). The virtues of the family. New York: The Free Press.
- 69) Zaretsky, E.(1976). Capitalism, the family and the personal life. N.Y.: Harper & Row.

- 투 고 일 : 2017년 08월 31일
- 심 사 일 : 2017년 09월 27일
- 게재 확정일 : 2017년 11월 24일